

14년 만의 4강 진출 목표...이강철호, 애리조나 캠프 소집

WBC 대표팀, 미국 애리조나 캠프 소집...국내 팀들과 5차례 연습경기 후 귀국

김하성·토미 에드먼은 3월 합류 예정...“일단 목표는 1라운드 통과해 8강 가는 것”

14년 만의 4강 진출 목표 아래 태극전사들이 모였다.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2023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 한국 야구대표팀이 15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 투손에서 본격적인 출항을 알렸다.

각자 소속팀 스프링캠프를 소화하며 몸을 만들던 선수들은 대표팀 훈련을 위해 애리조나에 도착했다.

이날 애리조나 캠프에 소집된 선수는 최종 엔트리 30명 중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토미 에드먼(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을 제외한 28명이다. 메이저리거인 김하성과 에드먼은 시범경기를 치르다 3월 초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대회가 한 달 여도 남지 않은 만큼 대표팀은

실전 경기 위주로 훈련을 진행한다.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17일 곧바로 NC 다이노스와 첫 연습경기를 갖는다. 이어 20일 KIA 타이거즈, 23·25일 KT 위즈, 27일 LG 트윈스와 연습경기가 예정돼 있다.

선수들은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조절하면서 동료들과 손발을 맞춰야 한다. 이강철 감독과 코칭스태프도 바쁘다. 선수들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대회 구상을 해야 한다.

대표팀은 28일까지 애리조나 훈련을 진행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3월1일 새벽 한국에 도착하고도 숨 돌릴 틈 없는 일정이 이어진다.

2~3일 고척스카이돔에서 마지막 검검을 가진 뒤 WBC 공식 소집일인 4일에는 일본 오사

카로 떠난다. 6일과 7일에는 각각 일본 오릭스 버펄로스, 7일 한신 타이거스와 마지막 모의고사가 계획돼 있다.

8일 결전지인 일본 도쿄돔으로 이동한 대표팀은 9일 호주와 첫 경기로 WBC 서막을 올린다.

한국은 2013, 2017년 WBC에서 연거푸 1라운드 탈락 수모를 당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6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2009년 대회 이후 14년 만의 4강 진출을 정조준하고 있다.

첫 상대인 호주에 이어 10일 일본, 12일 체코, 13일 중국전이 예정돼 있는 한국은 1라운드에서 조 2위에 오르면 8강에 나아갈 수 있다. 8강전에서 승리하면 미국 플로리다로 넘어가 결승 진출을 놓고 다투게 된다.

이강철 감독은 지난달 미국 출국을 앞두고



이강철 WBC 대표팀 감독이 16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23 WBC 대표팀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일단 목표는 1라운드를 통과해 8강에 가는 거” 이라면서 “(4강전이 열리는) 미국에 다시 가고 싶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뉴스

“이정후, 야구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인물 14위”

美 뉴욕 포스트 선정...1위 예비 FA 오타니



미국 메이저리그 도전 의사를 밝힌 이정후(25·키움 히어로즈)에 대한 현지 관심이 계속된다.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는 14일(한국시간)

야구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50인을 선정했다.

지난해 KBO리그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한 이정후도 14위에 이름을

올렸다.

매체는 13위에 오른 일본인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오릭스 버펄로스)와 이정후를 함께 소개했다.

“야마모토와 이정후는 지난해 일본과 한국 MVP다. 둘 다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에 출전하고, 올 시즌 뒤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예정이다”고 알렸다.

2017년 프로에 뛰어난 이정후는 2023시즌 뒤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의 문을 두드릴 계획이다.

지난달 말에는 ‘슈퍼 에이전트’로 통하는 스콧 보라스를 에이전트로 선임, 미국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정후의 바리그 도전 소식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다음달 열리는 WBC는 바리그 구단과 팬들에게 이정후의 존재를 각인할 쇼케이스가 될 전망이다.

한편, 뉴욕 포스트는 가장 흥미로운 인물로 2023시즌 뒤 FA 자격을 얻는 오타니 쇼헤이(LA 에인절스)를 꼽았다.

2위는 이번 비시즌 화끈한 투자를 아끼지 않은 스티브 코헨 뉴욕 메츠 구단주가 선정됐다. 3위는 우여곡절 끝에 미네소타 트윈스와 계약한 카를로스 코레아(미네소타 트윈스)가 차지했다.

‘4대륙 4위’ 차준환 “세계선수권서 최고 연기 펼치고파”

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아쉽게 메달을 놓친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22·고려대)의 세계선수권대회 각오는 한층 단단해졌다.

4대륙선수권대회를 마치고 1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차준환은 “이번 대회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차준환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11일 미국 콜로라도주 스프링스 브로드무어 월드 아레나에서 막을 내린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남자 싱글 4위에 머물렀다.

지난해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수확했던 차준환은 이번 대회에서 2연속 메달을 노렸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쇼트프로그램에서 83.77점으로 5위에 그친 차준환은 프리스케이팅에서 166.37점을 얻어 순위를 한 계단 끌어올리는데 만족해야 했다.

쇼트프로그램에서 연기를 시작하기 직전 해프닝도 있었다. 마이클 잭슨의 댄스곡 메들리에 맞춰 연기를 준비한 차준환은 시작 전 빙판 위에 이물질이 있다는 심판의 말에 이를 치우고 다시 준비 자세를 취했다. 음악도 약간 늦게 나왔다.

집중력이 다소 흐트러진 차준환은 쇼트프로그램에서 점프 실수가 나와 아쉬움을 삼켰다.

차준환은 “색다른 경험을 했다. 이런 일을 겪은 것이 처음이라 나도 조금 당황했다”며



“그래도 끝까지 집중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실수가 나오면서 흐름이 끊긴 것 같다. 나에게 아쉬운 부분이었다. 준비한 것을 다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시즌을 치르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는 차준환은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놓친 아쉬움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풀겠다는 각오다.

차준환은 15~19일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동계체전에 출전한 뒤 3월 20~26일 일본 사이타마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할 계획이다.

차준환은 “이번 시즌에 세계선수권에 포커스를 맞춰왔다. 세계선수권까지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다”며 “더 열심히 준비하겠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보이고 싶다. 준비한 것을 모두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슈팅 0개’ 침묵한 손흥민,

AC밀란전 평점 4~6점대

AC밀란(이탈리아)과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 1차전 원정 경기에서 침묵한 손흥민(31·토트넘)이 저조한 평점을 받았다.

토트넘은 15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란의 산시로에서 치러진 밀란과의 2022~2023시즌 UCL 16강 1차전 원정 경기에서 0-1로 졌다.

토트넘은 다음 달 9일 홈에서 예정된 16강 2차전에서 이겨야만 8강 진출을 노릴 수 있다.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후반 36분 아르나우트 단주마와 교체될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공격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손흥민은 이날 단 한 개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다. 전반 45분 역습 찬스에서 데얀 쿨루셉스키의 패스를 받아 슈팅을 날렸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돼 슈팅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2차례 키 패스와 7차례 크로스를 올리는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또 2차례 태클에 모두 성공하며 수비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팀의 패배로 손흥민의 평점 4~6점대에 그쳤다.

유럽축구통계사이트 후스코어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6.7점을 부여했다. 그래도 이날 선발로 함께 나온 해리 케인(6.6점), 쿨루셉스키(6.0점)보다 높았다.

영국 매체 90min은 “후반전엔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혹평하며 평점 4점을 매겼고, 풋볼런던도 “엉성한 볼 터치로 공을 자주 잃었다”며 평점 5점을 줬다.

토트넘은 20일 오전 1시30분 웨스트햄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4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전남 드래곤즈, 스트라이커 이용재

U22 장신 수비수 황명현 임대 영입

전남 드래곤즈는 ‘해외파’ 공격수 이용재를 영입하고 U22 장신 수비수 황명현을 임대 영입하여 공·수를 강화했다.

최전방과 측면 공격수로도 활약할 수 있는 이용재는 포철공고를 거쳐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해외 경험과 대한민국 연령별 축구대표팀(U17, U20, U23)에도 이름을 올렸던 선수다.

이용재는 2007년 해외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 왓포드FC 유소년팀에 입단하였고 2009년 프랑스 FC낭트(2009~12)에서 45경기 출전, 3득점을 기록하였다. 2013년 프랑스 3부 리그 레드스타FC(2013)로 임대 이적하며 29경기 출전, 4득점을 기록하며 유럽 리그에서 활약했다.

이용재는 2014년 여름 일본 J리그 무대로 동지를 옮겨 V-바렌 나가사키(2014~15)에서 51경기 출전, 10득점, 5도움, 교토상가 FC(2016~17)에서 65경기 출전, 11득점, 4도움

을 기록하였다. 2018년부터는 파지아노 오카야마(2018~2021)에서 활약하며 91경기 출전, 27득점, 6도움을 기록하였다.

2022년 인천UTD에 입단한 이용재는 20경기 출전, 1득점, 2도움을 기록하며 K리그 무대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입증했다.

황명현(2001년생)은 동국대를 거쳐 2022년 수원상성에 입단했다. 190cm 85kg의 황명현은 대인방어와 높은 제공권을 갖춘 장신 수비수이다. 황명현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력을 겸하고 있어 전남의 다양한 옵션 자원으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은 이용재와 황명현의 합류로 두터운 선수층을 구축하면서 23시즌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두 선수는 메디컬 테스트와 입단절차를 마치고 곧바로 훈련장에 합류하여 기존 선수들과 손발을 맞추기 시작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4대륙 슛’ 이해인 “(김)연아 언니 조언에 문제점 보완”

김연아 이후 14년만에 우승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의 간판 이해인(19·세화여고)이 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데 ‘피겨여왕’ 김연아의 조언도 한 몫을 했다.

4대륙선수권대회를 마치고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해인은 “(김)연아 언니가 이번 대회에 출전하기 전 조언을 해주셨다”며 “프로그램 처음부터 끝까지 힘이 넘치니 강약 조절을 더 잘하면 프로그램이 나아져 보일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다. 시선이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해주셨다. 언니가 조언해주신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이해인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11일 미국 콜로라도주 스프링스 브로드무어 월드 아레나에서 열린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여자 싱글 우승을 차지했다.

쇼트프로그램에서 69.13점으로 6위에 머물렀던 이해인은 프리스케이팅에서 무결점 연기를 펼쳐 141.71점을 획득, 총점 210.84점으로 우승했다. 그야말로 대역전극이었다.

한국 여자 싱글 선수가 4대륙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한 것은 2009년 김연아 이후 14년 만이다. 이해인이 ISU가 주관하는 시니어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은메달을 땀던 이해인은 이번에는 정상을 정복하는데 성공했다.

2021~2022시즌 이해인은 부침을 겪었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선발전 1차 대회에서 부진을 면치 못해 6위에 그쳤고, 2차 대회에서



이를 만회하는데 실패해 올림픽 무대를 밟지 못했다.

이해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해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213.52점으로 은메달을 따며 아쉬움을 달랬고, 지난해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7위에 올랐다.

올 시즌 초반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2022~2023 ISU 시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 3차 대회에서 잇따라 4위에 머물러 아쉽게 메달을 놓쳤다.

이해인은 실망하지 않았다. 가장 적합한 구성을 찾고자 점프 구성을 바꿔가며 보완을 이어갔고,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결실을 맺었다.

“근성이 대단한 것 같다”는 말에 이해인은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권을 따지 못했을 때에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4대륙선수권대회를 더 열심히 준비했다”며 “올림픽에 나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올림픽이 다가 아니라 그랑프리 시리즈, 4대륙선수권대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노력했다”고 답했다.